

# 아프리카의 對外經濟去來와 韓國의 進出에 관한 研究

金 世 源\*

<차례>

## 머릿말

- I. 經濟的 特性
  - 1. 一般 概況
  - 2. 後進經濟
  - 3. 產業構造
  - 4. 높은 資源輸出依存度
  - 5. 經濟去來의 偏重
- II. 開發計劃과 輸入需要의 動向
  - 1. 開發計劃의 遂行
  - 2. 輸入方向
- III. 主要 先進國의 對아프리카 經濟去來 : EEC 및 日本의 경우
  - 1. 多邊的 經濟 · 貿易協力
  - 2. 日本의 經濟進出
- IV. 韓國의 貿易去來 및 經濟進出
  - 1. 商品輸出
  - 2. 建設進出
  - 3. 資本進出
- V. 對아프리카 進出 關聯 諸制

## 約 및 與件

- 1. 아프리카化(Africanization) 政策
- 2. 財政構造의 不均衡
- 3. 金融政策
- 4. 國際收支 및 外債償還能力
- 5. 貿易政策
- 6. 經濟統合
- II. 韓國의 對아프리카 市場에 의 經濟的 進出 強化를 위한 政策對案
  - 1.. 資本 · 技術協力의 提供
  - 2. 支援體制의 再整備
  - 3. 地域別 進出戰略의 樹立
  - 4. 商品輸出
  - 5. 合作進出 : 企業進出, 建設輸出 및 開發輸入
  - 6. 플랜트 輸出
  - 7. 間接迂回輸出의 摸索

## 머릿말

本稿에서는 아프리카제국 經濟의 構造的 特性 및 對外去來의 特徵을 綜合分析하고 韓國의 經濟의 進出現況을 다시 한번 整理함으로서 兩地域間去來擴大方案을 모색코자 한다.

이러한 研究는 그 自體도 意義가 있으나 또 實際로 韓國과 아프리카間 經濟關係의 增進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難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

\* 서울대 사회대 國제經濟학과 교수.

사실 韓國의 對外去來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츠약성 中의 하나는 特定地域에 대한 偏重現象으로서 先進地域中 美·日에 대한 높은 依存度와 第3世界中 對中東一邊倒 傾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市場多邊化를 위한 시도라는 點에서도 아프리카經濟에 대한 연구를 深化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本研究는 6章으로 구성되었다.

第1章에서는 아프리카諸國의 經濟的 特性을 살펴보았는데 後進經濟圈의一般的이고도 共通의 現象은 除外하고 同大陸을 代表할 수 있는 特徵에 주로 局限하였다.

第2章에서는 아프리카諸國의 輸入需要를 概觀케 할 수 있는 經濟開發計劃과 商品輸入을 整理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先進諸國의 進出現況을 살폈다. 多邊的인 次元에서 EEC와 체결된 로마協定, 그리고 韓國의 向後 進出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日本의 進出形態를 中心으로 통합하여 보았다.

第4章에서는 韓國과의 經濟去來를 검토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아프리카 進出에 따르는 諸制約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第6章에서는 以上의 分析을 토대로 韓國의 經濟的 進出擴大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提言을 열거하였다.

끝으로 本稿에서 이미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KIET, 『아프리카經濟와 우리의 進出擴大方案』, 1984 및 『아프리카 主要國의 商品輸入構造分析』, 1984)에 의하여 정리된 통계를 많이 利用하였음을 밝혀둔다.

## I. 經濟的 特性

### 1. 一般概況

本研究에서 對象으로 하고 있는 흑아프리카(Black Africa)諸國\*은 赤道를 중심으로 南北回歸線上에 위치하고 있는데 世界總面積의 16%(21,778km<sup>2</sup>)에 달하는 넓은 地域을 포함하며 또 後述하는 바와 같이 品目에 따라 世界重要資源의 生產·輸出地域이기도 하다.

그러나 其他 經濟的 與件을 고려한다면 開發過程에 있어서 상당히 不利한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人口에 있어서 1982年 現在 約 3億 8,300萬

---

\* 北阿 6個國은 제외했으나 data 처리상의 문제로 南阿는 포함시켰음.

名으로서 世界 總人口의 8.5%에 해당하나 1975~80年間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2.9%에 달하여 世界平均值인 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年齡別 人口構成을 보면 15歲 미만의 소위 非勞動人口가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教育水準이 극히 낮아 文盲率도 높다.

다음 氣候面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地域이 年中 高溫・高濕의 热帶性 및 赤道氣候에 속하는데 강우량은 地域에 따라 큰 差異를 나타내며, 雨期에는 거의 經濟活動이 불가능할 정도로 暴雨가 集中하는 地域이 許多하다.

그以外 人種, 言語 및 宗教의 側面에서도 극히 多樣하고 또 異質의 樣相을 띠어 國家的 統合을 저해하고 있다. 黑아프리카內에는 9個 人種 그리고 3,000餘 種族이 散在해 있어 항상 政治・社會의 不安을 야기할 危險을 內包하고 있으며, 使用語는 公用語(舊宗主國 言語)라고 할 수 있는 英, 佛 및 포르투갈語 以外에도 約 1,000餘個의 土着語로 構成되어 있다. 宗教에 있어서 역시 기독교 및 이슬람교 以外 地域의 特色을 띤 各種의 土着宗教가 社會內 널리 뿌리를 박고 있다.

끝으로 政治・社會의 不安을 들 수 있다. 빈번한 쿠데타와 國境紛爭은 周知의 事實이거나 經濟・社會의 後進性, 異種族間의 對立 또는 舊植民勢力에 대한 반발을 앞세운 對外路線 및 體制의 選擇 等이 그 主要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一般的의 經濟的 與件을 中心으로 살필 때 黑아프리카諸國은 다음의 세 가지 經濟圈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比較的 安定의 바탕위에 高成長을 실현하고 있는 國家群으로서 南阿共,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가봉, 세네갈, 보츠나와, 콩고, 레소토, 모리타니아, 로데지아 및 스와질랜드 等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순수한 黑아프리카諸國으로 그 범위를 좁힌다면 5~6個國에 지나지 않는데 共通點으로서는 대부분 과거 프랑스植民地로서 西部에 위치하여 政治的 安定을 이룩하였고 또 資源保有國이라는 點을 들 수 있다.

둘째, 비록 高成長이나 個人所得面에서는 뒤지나 豐富한 地下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國家들로서 開發政策의 수행에 따라 大規模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代表의 例로서 나이제리아, 자이레, 앙골라 및 잠비아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原油를 비롯한 鐵物資源의 生產國이다. 特徵으로서는 人口, 保有資源規模 및 面積 等이 黑아프리카諸國內에서 가장 큰 經濟大國에

속한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는데 작은 革命, 國境紛爭 또는 一人中心의 獨裁體制로 인하여 政治的인 不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끌으로 小規模 經濟에 속하는 大部分의 黑아프리카諸國들로서 极히 貧國인 이들 經濟의 特徵은 극소수 热帶性產物의 生產 및 輸出, 그리고 對外援助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급속한 經濟開發政策의 遂行을 위하여 대다수의 國家가 開放體制를 指向하고 있으며 특히 舊宗主國에 대한 높은 經濟依存度를 갖고 있다.

## 2. 後進經濟

總體的으로 볼 때 黑아프리카經濟는 世界에서 最下位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 우선 所得面에서 比較하면 1981年 GNP總計는 2,524億달러로서 世界全體(소련 제외)의 2.7%(1980年)에 불과하다. 交易量도 적어 1982年 輸出 518

〈表 1〉 黑아프리카諸國의 1人當 GNP (1981)

360달러 미만	360~829달러	830~3,539달러	3,540달러 이상
차 드(110)	감 비 아(370)	나이지리아( 870)	가 봉(3,810)
이 디 오 피 아(140)	사 웅 토 메(370)	짐 바 브 웨( 870)	르 위 니 용(3,840)
체 도 기 니(180)	프 린 시 폐(370)	카 베 루 운( 880)	
말 리(190)	토 고(380)	보 츠 와 나(1,010)	
기 니 비 소(190)	가 나(400)	콩 고(1,110)	
말 라 위(200)	케 냐(420)	아 이 보 티(1,200)	
자 이 래(210)	세 네 갈(430)	코 스 트(1,270)	
우 간 다(220)	모 티 타 니(460)	모 리 시 어 스(1,270)	
브 른 디(230)	지 부 티(480)	세 이 웨(1,800)	
어 퍼 볼 타(240)	리 베 리 아(520)	나 미 비 아(1,960)	
루 안 다(250)	레 소 토(540)	남 아 공 화 국(2,770)	
소 말 리 아(280)	잠 비 아(600)		
탄 자 니 아(280)	스 외 질 랜 드(760)		
기 니(300)			
시 에 라 리 온(320)			
베 닌(320)			
코 모 로(320)			
중앙 아프리카(320)			
마타가스 카르(330)			
니 제 르(330)			
케이프 베 르 데(340)			

資料 : World Bank, 1983 *World Bank ATLAS*, 1983.

註 :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不明.

億달러, 輸入 550億달러 등으로 全世界交易量의 3.1%에 불과하다.

1人當 GNP를 살펴더라도 1981年 678달러로서 世界平均水準(1980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1人當 GNP가 360달러 미만인 全世界 32個 最貧國中 黑아프리카 국가는 21個國이나 존재한다(〈表 1〉 참조). 또한 大部分의 國家는 심한所得隔差 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低所得層의 分配에 대한 參與率로 世界平均에 크게 未達하는 實情이다.

經濟成長面에서 살펴보면, 아프리카經濟는 1976~81年中 年平均 3.8%의 實質 GDP成長을 기록하였으나 2次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世界不況의 영향으로 1982年에는 1.2%로 成長이 둔화되었고, 1983年에는 -0.7%의 마이너스成長을 기록, 危機를 맞았다.

특히 아프리카 最大產油國인 나이지리아는 1981年 -4.7%, 1982年 -2.0%, 1983年 -4.9%의 3년간 연속적인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함으로써, 最惡의 經濟危機를 맞았다. 이로 인하여 1983年 12月 쿠데타가 발생하여, 샤가라政府가 崩壞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 主要國의 1983年 經濟成長率을 보면 南阿 -4.0%, 짐바브웨 -3.0%, 아이보리코스트 -2.0%, 자이레 0.0% 等이며, 그동안 高成長을 維持하여 온 케냐도 1.8% 成長에 머물었다. 반면,例外的으로 카메룬과 가봉은 約 6%에 달하는 高成長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經濟危機는 原油를 비롯한 一次產品價格의 下落으로 인한 國際收支의 惡化, 심한 가뭄으로 인한 農業生產減少, 政情不安과 國境紛爭 等으로 인한 投資 및 生產活動의 低調 等에 크게 起因한다.

그러나, 아프리카經濟는 1984年 回復勢로 전향하였으며, 1988年까지 年平均 2.3%의 완만한 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展望된다.

### 3. 產業構造

낮은所得水準 및 依成長의 特徵의에,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經濟的脆弱性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指標는 그 產業構造이다.

〈表 2〉에서 볼 수 있듯이, GDP構成比로 본 黑아프리카의 產業構造는 서비스業, 鎳工業, 農業順의 構造를 갖고 있는데, 가봉, 잠비아 및 콩고 等一部國家들의 경우 特定 鎳物資源 採取 產業의 發達로 인하여 鎳工業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三次產業의 肥大는 一次產品 生產・輸出을 중심으로 商業部門의 發達과 觀光業을 비롯한 서비스部門의 活動 그리고 政府

〈表 2〉 黑아프리카主要國의 GDP 및 產業構造 單位 : %

	GDP (百萬달러)		農業		礦工業 <sup>1)</sup>		製造業		서비스業	
	1960	1981	1960	1981	1960	1981	1960	1981	1960	1981
가나	1,220	21,260	41	60	10	12	..	7	49	28
가봉	129	3,429	..	17	..	62	..	..	..	21
나이지리아	3,150	70,800	63	23	11	37	5	6	26	40
남아공화국	6,980	74,670	12	7	40	41	21	23	48	52
니제르	250	1,710	69	30	9	32	4	8	22	38
루안다	120	1,260	80	46	7	22	1	16	13	32
리베리아	220	930	..	36	..	27	..	8	..	37
마다가스카르	540	2,890	37	35	10	14	4	..	53	51
말리	270	1,120	55	42	10	11	5	6	35	47
모리시어스	137	986	..	17	..	23	..	16	..	60
모리타니	90	630	44	28	21	24	3	7	35	48
베냉	160	850	55	44	8	13	3	7	37	43
세네갈	610	2,330	24	22	17	26	12	15	59	52
아이보리코스트	570	8,670	43	27	14	23	7	12	43	50
어퍼볼타	200	1,080	55	41	16	16	9	12	29	43
우간다	540	9,390	52	75	12	4	9	4	36	21
이디오피아	900	3,870	65	50	12	16	6	11	23	34
자이레	130	5,380	30	32	27	24	13	3	43	44
잠비아	680	3,430	11	18	63	32	4	18	26	50
중앙아프리카	110	690	51	37	10	13	4	6	39	50
공화국	780	6,010	18	18	35	37	17	27	47	45
짐바브웨	550	6,270	..	27	..	20	..	8	..	53
카메룬	730	6,960	38	32	18	21	9	13	44	47
콩고	130	1,870	23	9	17	53	10	5	60	38
토고	120	880	55	24	16	27	8	7	29	49
合計 <sup>2)</sup>	19,316	237, 365	..	25	..	32	..	13 <sup>3)</sup>	..	43

資料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83*, 1983.

註: 1) 製造業 포함.

2) 表上에 기록된 25國民을 대상으로 함.

3) 가봉, 마다가스카르 제외.

部門의 擴大에 주로 起因한다. 따라서 最近까지 黑아프리카諸國의 產業構造를 綜合한다면 일부 鎳物資源 및 热帶性產物 等一次產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特定 少數의 資源生產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이른바 單一耕作的(monoculture) 產業構造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형적인 低開發 經濟模型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產業別 成長率을 살피면 部門別로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데, 大部分 國家가 급속한 工業化政策을 추구함으로써 製造業의 擴大가 두드러진다. 한 예로 黑아프리카諸國內 1960年代 이후 1970年代 末까지 部門別 成長率을 비교하면 製造業의 경우 約 8%로서 農業部門보다 거의 3~4倍 빠른 속도로 成長하여 왔다. 물론 이 역시 國別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며 또 資源波動 이후 一部諸國은 國際收支 壓力으로 인하여 低成長을 면치 못하고 있다.

產業別로 살피면, 우선 扱傭面에서 農業이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80年 現在 全勞動力의 73%를 吸收하고 있다. 그러나 成長率은 물론 生產性이 극히 낮은데 이는 農業生產部門에 있어서 傳統的인 生產方式에 依存함으로써 機械導入을 위시한 現代化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灌溉設施의 未備 및 零細性 等 여러가지 要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鎳物資源保有國들의 鎳業部門比重은 서비스部門 다음으로 重要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國家들에 있어서 역시 鎳業部門은 農業部門보다 勞動力吸收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그보다는 外貨收入源, 나아가 開發費用을 支出하기 위한 財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比하여 製造業은 크게 落後되어 있는데 모리시어스, 잠비아,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等 一部 諸國을 제외한다면 全產業에서 차지하는 百分比는 1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製造業은 热帶性 產物 및 鎳物 等 주로 1次產品의 單純加工이 중심을 이루는데 外國資本과 技術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黑아프리카內 重要 製造部門을 열거한다면 一次產品 以外에도 섬유 및 시멘트를 비롯하여 幼稚한 단계이나마 製鐵, 精油 또는 化學工業 等을 들 수 있는데 經濟開發計劃의 違行을 通하여 工業化의 擴大를 서두르고 있다.

끝으로 거의 全黑아프리카諸國內 社會間接資本部門 및 서비스部門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一般商業, 政府部門의 서비스 및 觀光業 以外에도 建設部門을 포함하는 社會間接資本形成을 위한 投資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높은 資源輸出 依存度

後進國內 共通의 現象의 하나로서 經濟가 數個의 資源輸出에 크게 依存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黑아프리카諸國의 경우 더욱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大陸의 세계적인 保有資源으로서 主要 外貨獲得源을 든다면 鎳山物과 热帶性作物로 大別되는데, 國別 重要資源의 總輸出에 대한 構成比를 보면 대부분의 諸國에 있어서 1個의 一次產品이 50% 以上, 그리고 2~3個의 資源을 이에 추가한다면 거의 80~9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數個의 資源輸出이 아프리카의 工業化促進을 위하여 所要되는 중요 外貨獲得源이 되고 있으나 그것은 政治的인 變動과 함께 經濟的인 不安의 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사실 1973年 第 1次 原油波動을 前後로 一次產品 價格이 工產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戰後부터 1970年代 初까지 國際經濟에 있어서 일반적인 現象中의 하나는 原資材 輸出國의 交易條件(Terms of Trade)惡化 現象이다. 구태여 Prebisch 等 交易條件學派의 主張을 빌리지 않더라도 單純히 價格變動의 추이만을 살펴도 쉽게 이를 알 수 있다. 즉 1953年을 100으로 할 때 1970年 一次產品의 價格指數는 102로서 2%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工產品의 價格指數는 同期間 30% 상승함으로써 原資材 價格이 상대적으로 크게 下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黑아프리카諸國의 經濟가 一次產品의 國際時勢變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資源波動 以後 一次產品 價格이 上昇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주로 原油에 국한되며 그 이외 資源에 있어서는例外的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최근까지도 불안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後進諸國이 原資材 價格의 安定 내지는 交易條件의 下落에 대한補償을 내용으로 하는 國際協定의 締結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EEC-ACP諸國間 로마協定의 締結에 의한 热帶性產物 및 鎳物 輸出價格 安定基金 설립의 例에서도 볼 수 있듯이 黑아프리카諸國은 對 EC 地域資源輸出, 收入에 대하여 일부 保障을 받고 있으나 그 以外 國際的인 次元에서는 이에 관한 具體的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5. 經濟去來의 偏重

黑아프리카諸國의 經濟去來에 있어서 또 다른 特徵中의 하나는 一定地域,

특히 EC地域에 대 한 偏重現象이다. 70年代 末 黑아프리카諸國의 總輸入에 서 EC諸國의 構成比는 50%를 상회하며 나아가 全先進國의 比重은 80%에 달한다. 최근에는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급격히 增大되고 있다(1981年 先進國의 11.2%). 한편 輸出에 있어서는 偏重傾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EC諸國이 차지하고 있는 構成比는 거의 60%에 이르고 있다.

黑아프리카諸國의 對外貿易을 國別로 살펴보면 共通的으로 舊宗主國과의 去來가 傳統的으로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예로 西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舊프랑스共同體 會員國은 프랑스와, 자이레는 벨기에와, 그리고 나이제리아 및 東部 아프리카諸國은 英國과의 貿易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그 以外 特徵으로서 黑아프리카域內 貿易이 相對的으로 下落하는 반면 其他 地域과의 貿易이 擴大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輸入의 경우 韓國, 대만, 홍콩 및 싱가폴 等 아시아의 소위 中進諸國의 進出이 증가하고 있다.

## II. 開發計劃과 輸入需要의 動向

本章에서는 좀더 범위를 좁혀 韓國의 經濟的 進出 與件과 關聯하여 중요 市場分析을 시도하였다.

아프리카諸國이 後進經濟로서 거의 예외 없이 經濟・社會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는데, 社會間接資本部分을 중심으로 한 建設投資計劃은 韓國의 企業建設 및 플랜트輸出 可能分野나 規模를 말하여 준다. 또 일반적인 商品去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諸國의 輸入 動向을 정리함으로써 韓國의 輸出擴大 可能性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開發計劃의 遂行

아프리카諸國이 經濟開發을 遂行하는 趣旨는 總體的으로 볼 때 經濟의 自國化, 農業의 近代化, 一次產品 開發의 加速化, 雇傭增大 및 人力開發, 그리고 社會間接資本部門의 開發 等으로 要約된다.

黑아프리카 28個國의 總開發投資額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計劃期間中 年平均 412億 달러에 달한다. 또한 이들의 年平均 GDP 計劃成長率은 5~10%에 달해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 目標를 세우고 있다. 이들 28個國의

&lt;五 3&gt; 黑아프리카 주요국의 現行開發計劃

單位: 百萬 달러, %

國 別	計 劃 名	期 間	總投資額	年平均 投資額	主要部門別 投資比重	
					年平均 GDP 成長率	目標 GDP
베 닌	10計年計劃	1981~1990	3,529	352.9	7.0	인프라부문(33.0)
보 츠 와	5個年計劃	1979. 4~1984. 3	907	181.4	..	토목·통신(30.2), 차량정부·토지(18.2), 농업(11.8)
브 룬 디	第4次開發計劃	1983~1987	1,189	237.8	3.7	농업(22.7), 공업(18.2), 에너지(11.5)
카 메 루 운	5차 5개년계획	1981. 7~1986. 6	8,200	1,640	7.2	농업(23.7), 광공업(16.4), 도시계획(15.3)
중央 아프리카	國家行動計劃	1982~1985	413	103.3	9.0	인프라(42.0), 농업(27.5), 공업(23.1)
콩고	경제 사회개발 5개년계획	1982~1986	3,363	672.6	10.0	인프라(48.0)
이니오 피아	10개년개발계획	1980. 7~1990. 6	13,500	1,350	7.5	농업(26.0), 수송통신(26.0), 제조업(15.0)
감비아	2차국가개발계획	1981/82~1985/86	241	48.2	5.1	..
가나	4차개발계획	1981~1985	9,090	1,818	2.0 <sup>b</sup>	농업(23.0), 제조업(10.0)
기니	4차개발계획	1981~1985	1,453	290.6	..	농업(22.0), 광공업(18.0), 에너지(9.0)
아이보리코스트	제3차경제사회发展规划 5개년개발계획	1981~1985	8,909	1,781.0	5.7	생활개선(22.3), 농업(20.6), 수송통신(18.9)
레소토	제3차개발계획	1980/81~1984/85	7,001	1,400.2	..	..
리비아	제2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1981~1985	614	122.8	..	농업(30.4), 수송통신(25.3), 천연수도(11.6)
말라위	5개년개발계획	1981/82~1985/86	2,669	533.8	..	수송통신(37.4), 농업(21.1), 사회서비스 (13.2)
말리	5개년개발계획	1981~1985	1,463	292.6	5.0	농업(34.0), 광공업·에너지(26.7), 통신· 주택(27.3)
나제로	10개년계획	1981~1990	1,914 <sup>a</sup>	382.8 <sup>a</sup>	17.0 <sup>a</sup>	광업(18.1), 농업(17.5), 에너지(13.5) <sup>a</sup>

國 別	計 劃	期 間	總投資額	年平均投資額	年平均目標GDP成長率	主要部門別投資比重
나 이 채 리 아	제 4 차-국가-계-발-체-회	1981~1985	140,000	28,000	8.4	광공업(29.5), 도소매업(21.8), 전설·주택 (14.2)
루 안 다	10개년계 발-체-회	1981~1990	3,786	378.6	..	농업(30.1)
세 네 이	제 6 차-경-제-사-회-기-발-4개년-체-회	1981.7~1985.6	1,900	475	..	광공업(26.7), 수송통신(18.4), 농업(11.9)
세 웨	제 3 차-국-가-계-발-체-회	1981~1985	424	84.8	..	..
시 에 라 은	3개년계 발-체-회	1981.7~1984.6	118	393	..	인프라(50.1), 농업(24.3), 광업(7.8)
소 말 리 아	5개년계 청-체-회	1982~1986	..	..	2.3 <sup>3)</sup>	농업(30.0), 광공업(25.0), 수송(25.0)
남 탄 차 니 아	제 9 차-기-발-체-회	1978.4~1987.3	..	..	5.1	..
토 고	제 4 차 5개년계 발-체-회	1981~1985	4,850	970	6.0	..
우 간	제 4 차 5개년계 발-체-회	1981~1985	1,356	271.2	6.5	인프라(29.5), 제조업(29.3), 농업(26.5)
어 페 볼 타	2개년회-부-체-회	1982.7~1984.6	558	279	..	..
짐 바 브 웨	10개년계 발-체-회	1981~1990	2,981	298.1	..	농업(32.5), 광공업(16.9), 수송통신(24.7)
	3개년계 발-체-회	1982.7~1985.6	8,100	2,700	8.0	제조업(23.0), 수송(14.0), 농업(13.0)
	計			209,572	41,184.8	

資料 : Europa, Africa South of the Sahara 1982-83, 12th ed. June 1982.  
 EU, QER, 1981~83年各號。  
 Marchés Tropicaux et Méditerranéens, 1981~83年各號。  
 Bulletin de l'Afrique Noire, 1981~83

註 : 1) 1981~83年的目標成長率。  
 2) 1981~85年的投資規模、年平均產業生產增加率、部門別投資比重。  
 3) 農業部門의 年平均成長率, 기타 부문은 4.7%.

年平均 總投資規模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나이제리아가 68%(280億 달러)로서 거의 절대적이며, 그밖에 10億달러 이상의 年平均 投資額을 나타내는 國家는 짐바브웨(6.6%), 아이보리코스트(4.3%), 카메루운(4.0%), 레소토(3.4%), 이디오피아(3.3%)의 六個國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部門別 投資配分을 보면 後進地域의 一般的인 추세를 반영하여 社會서비스部門, 輸送·通信, 鑛工業 等이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 2. 輸入市場

대부분의 아프리카諸國의 貿易依存度가 높기는 하나 輸出入伸張이 상대적으로 낮아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다소 下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70年 기준 黑아프리카의 世界貿易에 대한 構成比는 輸出入에 있어서 각각 3.8% 및 3.6%였으나 1982년 518億 달러 및 550億 달러로서 同構成比는 각각 3.0% 및 3.2%로 하락하였다. 즉 1977~82年間 年平均 世界輸出入 伸張率이 10.7%內外였던데 반하여 黑아프리카諸國의 경우 각각 6.5% 및 10.6%에 머물렀다.

아프리카諸國의 貿易이 이와같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는 가장 根本의 理由中의 하나는 產業·輸出構造에서 緣由된다. 經濟가 數個의 一次產品 輸出收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은 이미 強調하였거니와 國際景氣의 沈滯延長에 따르는 重要 先進諸國內 輸入需要의 減退, 原資財 國際時勢의 不安 내지는 상대적 下落 또는 國際景氣에 대한 非彈力的인 輸出產業構造 等이 그 主要因으로 풀이된다. 결국 輸出所得의 下落은 輸入의 위축을 가져왔고, 中間財, 資本 및 施設財 等의 非彈力的인 輸入構造는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深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 1) 國別 市場規模

黑아프리카의 主要 10個國의 1977~82年的 輸入規模는 <表 4>와 같다.

우선 南阿共을 제외하더라도 人口 및 所得面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제리아,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잠비아 等이 비교적 大規模의 市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國家의 輸入이 대체로 1981年까지는 증가했다가 1982년에 감소한 推移를 보이고 있다.

國別 比重을 보면 南阿共과 나이지리아 두 국가가 黑아프리카 總輸入의

〈表 4〉 중요 10個國<sup>1)</sup>의 輸入推移 單位: 百萬달러, %

	1977	1978	1976	1980	1981	1982	構成比 1977~82 年平均 增加率
南阿共和國	6,270	7,615	8,989	19,246	22,616	18,532	33.7 24.2
나이제리아	11,095	12,821	10,231	16,635	20,915	14,456	26.3 5.4
아이보리 코스트	1,756	2,326	2,492	2,991	2,383	2,180	4.0 4.4
케냐	1,285	1,710	1,660	2,332	2,135	1,745	3.2 6.3
짐바브웨	710	685	929	1,448	1,796	1,639	3.0 18.2
카메루운	783	1,056	1,275	1,602	1,426	1,204	2.2 9.6
탄자니아	806	1,148	1,100	1,258	1,155	1,137	2.1 8.9
잠비아	787	730	906	1,308	1,256	998	1.8 4.9
세네갈	764	755	931	1,052	861	974	1.8 5.0
가봉	716	617	532	673	928	811	1.5 2.5
기타	8,256	9,656	11,419	14,413	13,907	11,342	20.6 6.6
黑아프리카 <sup>2)</sup>	33,230	39,119	40,464	62,958	69,333	55,018	100.0 10.6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83*, 1983.

註 : 1) 1982년 輸入額의 크기 순으로 10個國 선정.

2) 其他國 包含.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南阿共은 年平均增加率이 24.2%에 달해 가장 높은 輸入伸張率을 기록했다. 나이제리아는 1979년까지는 黑아프리카 최대 輸入規模를 보였으나 1980年부터 南阿共에 뒤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외에 아이보리 코스트, 케냐, 짐바브웨, 카메루운, 탄자니아 等이 10億 달러 이상을 輸入하고 있다.

## 2) 地域別・品目別 輸入

第1章에서도 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諸國의 對外輸入에서 차지하는 先進諸國의 比重은 壓倒的인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輸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工產品을 이 지역으로부터의 供給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프리카\*의 先進國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 對象地域別 구성을 비교하면 1981年 기준 EEC諸國이 61.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 日本(11.2%), 美國(11.1%), EFTA(유럽自由貿易聯合) 加盟國(6.3%), 카나다(1.6%), 南阿共(1.6%), 호주 및 뉴질랜드(0.9%) 順이다.

〈表 5〉에서는 아프리카의 先進國으로부터의 品目別 輸入推移 및 構造를 살펴 보았다. 1976年과 1981年의 輸入商品構造를 비교해 보면, 工產品이

\* North Africa 포함, 南阿共 제외.

〈表 5〉 아프리카의 品目別 輸入推移 및 構造<sup>1)</sup>

	SITC No.	1976	構成比	1977	1978	1979	1980	1981	構成比	年平均 增加率
				1976~81 年平均 增加率						
總輸入料·品	0~9	34,179	100.0	42,325	46,213	50,068	65,651	67,869	100.0	14.7
飲食料·品	0+1	3,518	10.3	4,381	5,293	6,049	9,025	10,168	15.0	23.6
穀物	041~045	1,145	3.4	1,160	1,569	1,973	2,811	3,114	4.6	22.2
原料	2+4+68	1,144	3.3	1,626	1,773	2,184	3,007	2,659	3.9	18.4
기름유씨·염	22	17	0.0	53	33	44	52	48	0.1	23.1
纖維	26	180	0.5	252	240	291	362	309	0.5	11.4
未加工肥料·礦物	27	97	0.3	114	139	214	342	347	0.5	29.0
動·植物性油脂	4	373	1.1	522	633	792	913	791	1.2	16.2
非鐵金屬	68	218	0.6	319	373	391	563	497	0.7	17.9
燃	3	776	2.3	961	1,187	1,968	2,632	2,270	3.3	23.9
化學製品	5	2,456	7.2	3,105	3,483	4,233	6,009	5,343	7.9	16.8
機械·輪道	7	18,262	53.4	21,842	22,881	22,690	27,972	29,895	44.0	10.4
其他	2)	1,091	3.2	1,458	1,637	1,645	2,066	2,565	3.8	18.6
纖維絲織物	6+8~68	7,495	21.9	9,659	10,768	11,901	16,087	16,587	24.4	17.2
鐵	65	1,136	3.3	1,351	1,444	1,463	2,001	2,070	3.0	12.8
其他金屬製品	3)	1,309	3.8	1,833	2,374	2,497	2,979	3,271	4.8	20.1
衣	84	285	0.8	376	403	436	623	717	1.1	20.3

資料: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February 1983.

註: 1)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 北阿 6國 包含, 南阿共和國 除外, 金額은 FOB 基準.

2) SITC No. 7321, 7326, 7331, 7334.

3) SITC No. 691~695, 698, 812.

82.5%에서 76.3%로 위축된 반면 飲食料·담배는 10.3%에서 15.0%로, 原料는 3.3%에서 3.9%로, 燃料는 2.3%에서 3.3%로 각각 확대되었다. 工產品中에서 機械·輸送裝備가 53.4%에서 44.0%로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 III. 주요 先進諸國의 對아프리카 經濟去來 : EEC 및 日本의 경우

經濟는 물론 歷史, 政治 및 社會 等 諸分野에 있어서 특수한 關係로 因하여 「아프리카」內 가장 견고한 시장기반을 갖고 있으며, 또 다양한 형태의 경제거래를 폭넓게 유지하여 오고 있는 地域은 「유럽」, 특히 프랑스 및 英國을 비롯한 舊宗主國들이다. 二次大戰 以後 舊植民勢力에 대한 각종의 저항운동이 꾸준히 展開되어 왔으며 또 政治的 獨立 以後에도 UN을 위시한 國際的 모임에서, 또 其他 外交關係에 있어서도 공공연히 不和 내지는 분쟁이 빈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총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諸國은 傳統적으로 유럽지역과 가장 밀접한 經濟關係를 맺고 있다. 資本 및 技術面에서 最後進狀態에 있는 아프리카經濟가 급속한 경제개발, 工業化를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需要를 갖고 있다는 點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以外 아프리카諸國의 經濟去來를 多邊化하기 위한 노력이나 先進諸國間 심한 競合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美國 및 日本의 進出도 한층 加速化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本章에서는 多邊的 次元에서 EEC와 아프리카間 체결된 「로메」협정, 그리고 日本의 經濟的 進出과 같은 대표적인 두가지 두드러진 例를 고찰함으로써 韓國의 對아프리카 經濟去來의 擴大戰略에 참고하고자 한다.

#### 1. 多邊的 經濟·貿易協力—EEC·아프리카間 로메協定—

아프리카諸國의 獨立과 함께 EEC는 프랑스의 舊植民地 中心의 西部 및 中部 아프리카 18個國과 自由貿易地域 및 經濟協力を 내용으로 하는 야운데(Yaoundé)協定을 締結하였으며 그후 1969年까지 5年間 연장되었다. 한편 英國植民地下에 있었던 南部아프리카 3個國(탄자니아, 케냐 및 우간다)과도 야운데協定과 비슷한 形態의 아루사(Arusha)協定이 1969年 締結된 바 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與件의 變化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예로서

英國을 비롯한 3個國의 EEC加入, UNCTAD 테두리내에서의 一般特惠制度(GSP)實施, 資源波動 等을 들 수 있다. 이에 장기간 協商을 거쳐 EEC會員國과 特惠關係를 맺어온 아프리카, 카리브 및 太平洋地域內 46個國(이를 ACP地域이라 함)과 EEC間 1975年 2月 쟁드의 수도인 로메에서 特惠協定(Lomé Convention)이 調印되었으며 그 내용이 종전의 야운데協定에 비할 때 크게 修正되었다.

同協定의 有效期間이 5年이므로 1979年 10月 第2次 協定을 거쳐 1984年 12月 第3次 協定이 조인되어 현재 發效中이다. 協定의 내용이 한층 보강되었음은 물론 會員國의 범위에 있어서도 ACP측의 46個國이 66個國으로 擴大되었는데 그 중 45個國이 아프리카大陸에 속한다.

〈表 6〉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第2次 協定期間中 EEC에 의한 다변적 財政援助의 규모는 74億 5,700萬 달러로서 第1期에 비하여 72% 增額되었다. EEC산하기관인 유럽開發基金(EPF) 및 유럽投資銀行(EIB)에 의하여 수행되는 同援助의 對象事業은 兩地域間 貿易協力 增大, STABEX 對象品目擴大, 鎳山物價格安定基金(MINEX)의 新設, 식량원조, 社會間接資本

〈表 6〉 EEC의 對 ACP 財政支援

區 分	第1次 協定(75~80)		第2次 協定(80~85)	
	백만 U. A. <sup>2)</sup>	백만 달러	백만 U. A.	백만 달러
EDF <sup>1)</sup>				
補助金 (豫算赤字補充金)	2,155 (—)	2,692 (—)	2,928 (180)	3,894 (239)
特別借款 긴급자태에 대한 차금 공여	444 94	555 117	504 260	670 346
STABEX	382	477	550	731
광산물안정기금 기타	— —	— —	280 180	372 239
EIF				
經常借款 鑛物開發以外借款	390 —	487 —	685 200	911 266
總計	3,466	4,329	5,607	7,457

註: 1) EDF에 대한 國別投資比率은 西獨 28.3%, 프랑스 25.6%, 英國 18%, 이태리 11.5%, 네덜란드 7.4%, 벨기에 5.9%, 민마크 2.5%, 에이레 0.6% 그리고 룩셈부르크 0.2%임.

2) UA(Unit of Account)로서 SDR과 同等한 價值로 換算됨.

資料: *Marchés Tropicaux*, 1979. 10. 26.

開發 및 工業協力의 강화 等이다.

특기할 것은 ACP諸國의 원자재 輸出價格 安定을 위한 支援對象品目에 있어서 热帶性產物의 경우 44개로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STABEX) 10개의 鎳物資源에 대하여 MINEX를 新設하였다는 점이다.

## 2. 日本의 經濟進出

日本은 戰後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계속 推進하기 위해 풍부한 賦存資源과 막대한 開發潛在力を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進出을 서둘러 왔다. 따라서 아프리카大陸 進出에 있어서 西歐에 비해 後發走者の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또 韓國과 비슷한 經濟的 與件을 갖고 있으므로 日本의 對아프리카 進出의 形態, 現況 및 政策에 대한 分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1) 貿易

〈表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日本의 對아프리카 貿易規模는 1982년 현재 6,756백만 달라로서 總貿易額에 대한 構成比는 2.5%에 해당한다. 70년대 후반 한 때 同構成比가 3.5%에까지 이르렀으나 78~82년간 日本의 對外貿易年平均 增加率이 12% 內外였던 데 反하여 對아프리카의 경우 8.5%로 하락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前述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諸國의 總對外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를 상회함으로써 美國과 함께 4~5位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의 對아프리카 貿易이 相對的으로 低調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특히 第二次原油波動 以後 이들 諸國의 對外購買力이 크게 떨어졌다는 데 起因한다.

日本의 對아프리카 貿易은 무엇보다도 단순한 商業베이스가 아니라 借款

〈表 7〉 日本의 對아프리카 貿易 推移 單位: 百萬달러,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78~82年平均 構成 伸張 (%)
	構成 比		構成 比		構成 比		構成 比		構成 比		構成 比		
아프리카貿易	4,491	3.0	4,911	2.8	5,454	2.6	8,005	3.0	8,920	3.0	6,756	2.5	8.5
輸出	2,666	3.3	2,923	3.0	2,654	2.6	4,617	3.5	5,577	3.7	3,919	2.8	8.0
輸入	1,825	2.6	1,988	2.5	2,800	2.6	3,388	2.4	3,343	2.3	2,837	2.2	9.2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3.

供與 및 技術提供과 같은 폭넓은 經濟協力과 이들 國家가 수행하고 있는 開發計劃에 대한 적극 참여에 依하여 보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以外 日本은 다른 國家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對 아프리카 貿易에 있어서도 黑字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79년을 제외한다면 매년 平均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出超를 보이고 있는데 72년의 경우 同 黑字幅은 거의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음 日本의 對아프리카 貿易은 數個國에 극히 편중되어 있다는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70년에 중반 以後 리베리아가 35%內外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다소의 變化가 있었다 하더라도 同國以外 南阿共, 나이제리아, 캐나, 탄자니아, 아이보리코스트, 앙고라, 자이레, 카메룬, 이디오피아, 잠비아를 포함하는 11個國에 그 대상을 크게 국한하고 있다. 또 國別로도 貿易收支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經濟協力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品目別 貿易構造를 살펴면, 수출에 있어서 重化學工業製品이 85% 以上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反面 輸入에 있어서는 鑽物性燃料 및 加工製品이 거의 60%, 그리고 기타 原料製品을 더하면 75~80%사이에 위치함으로서 전형적인 「南北貿易」의 형태를 띠고 있다.

## 2) 直接投資

日本의 對아프리카 直接投資는 1981年末 累計 20億 1,800萬 달러로서 日本의 總海外投資의 4.4%에 달한다. 大陸別로 비교한다면 가장 낮은 水準인데 그 이유는 주로 아프리카內 開發與件이 불리하다는 점 이외에도 政治不

〈表 8〉 日本의 對아프리카 投資(1981年末 總計) 單位: 百萬달러

國	別	金額(對아프리카 構成比, %)
리	베	1,257 (62.3)
자	이	255 (12.3)
나	제	154 (7.6)
장	비	100 (5.0)
니	제	77 (3.8)
가	봉	62 (3.1)
기	타	113 (5.6)
아프리카 計		2,018 (100.0)

資料：日本通產省, 『經濟協力の現状と問題點』, 1982.

安으로 危險負擔이 크다는 데 기인한다.

國別投資現況을 보면(表 8) 리베리아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의 62.3%를 차지하며 그 다음 차이레, 나이제리아 및 잠비아 等의 順이다. 國別 投資對象을 살펴면 리베리아에 있어서는 商業性 投資, 그리고 차이레에 있어서는 資源開發投資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나이제리아의 경우 資源開發投資 뿐 아니라 製造業部門에 대한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日本의 對아프리카 直接投資의 業種別 構成은 서비스業(62.5%), 鎳業(25.6%), 製造業(7.6%), 農林漁業(3.0%)의 順으로서 전세계에 대한 日本의 業種別 投資構成에 비하면 製造業에 대한 投資水準이 매우 낮은 반면 서비스業에 대한 投資水準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 3) 資本·技術協力

#### ① 資本協力

##### (i) 政府베이스 資本協力

우선 無償協力面을 살펴보면 1982年末 현재 約 4.8億 달리를 제공함으로서 總對外無償協力額의 19.5%에 해당한다. 形態別로 보면 一般無償協力, 文化無償協力, KP(케네디 라운드)食糧援助, 食糧增產, 債務救濟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一般無償協力이 67.2%로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無償協力의 主要供與對象國은 수단,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로서 이들 국가의供與合計額에 대한 構成比는 38.7%에 이르고 있다.

다음 有償協力を 살펴면 1982年末 현재 約 2,083백만 달리로서 總有償協力額의 9.7%에 지나지 않고 있다. 形態別로 보면 프로젝트借款, 商品借款, 債務救濟, 食糧援助(米穀延拂輸出)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借款이 8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有償協力의 主要供與對象國은 나이제리아,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等의 順이다.

##### (ii) 民間베이스 資本協力

일부 海外投資를 제외한다면 延拂輸出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데 블랙 아프리카에 대한 延拂輸出額은 1982年 3月末 현재 185억 달라에 달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延拂輸出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品目別로 보면 船舶이 153억 달러(82.1%), 一般플랜트를 위시한 產業機械가 2,662백만 달러(14.3%), 電氣機械 166백만 달러(0.9%)의 順이다. 國別로 보면 리베리아(80.7%), 나이제리아(9.4%), 케냐(0.7%)의 順이다.

## ② 技術協力

日本의 對黑아프리카 技術協力은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機材供與 等의 方式을 택하고 있다.

研修生招請은 1981年末 累計 3,604名으로 全世界招請者數의 5.1%에 해당하며, 國別로 보면 나이제리아 693名, 탄자니아 429名, 케냐 424名, 가나 421名, 이디오피아 및 수단이 각각 343名으로서 전체의 73.6%에 달한다. 專門家派遣은 1981年末 累計 5,084名으로 全世界派遣者數의 12% 정도이며, 國別로 보면 케냐(20.3%), 탄자니아(17.4%)에 집중되고 있다. 그 밖에 機材의 부족으로 技術習得·普及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當該國의 요청에 따라 이를 供與하고 있다.

## 4) 플랜트輸出

日本의 對아프리카 플랜트輸出實積은 1979年 863백만 달러(총 플랜트輸出의 7.3%), 1980年 1,468백만 달러(18.5%), 1981年 1,392백만 달러(11.3%)에 달하여 開途國 中 東南아시아, 中近東地域 다음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主要輸出對象國은 나이제리아,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가나, 루안다, 리베리아, 이디오피아 等이며 主要進出業種은 電力, 通信, 石油·가스, 파이프라인 等이다.

日本은 附加價值가 높고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플랜트輸出을 적극 支援하고 있는데 政策의 主要形態는 輸出金融, 輸出保險, 圓借款供與, 컨설팅企業의 育成 等이다.

## IV. 韓國의 貿易去來 및 經濟進出

韓國의 對아프리카 進出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始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나, 그간 높은 伸長率을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小規模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國別로도 구조적으로 크게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輸入의 경우 代表的인 例로서 그 地域別 構造에 있어서 南阿, 리베리아 및 스와지랜드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本研究의 對象인 「사하라以南 黑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극히 작은 비중에 지나지 않는다. 또 品目別 構造를 보더라도 南阿의 一部 광산물 輸入을 除外한다면 對黑아프리카

輸入은 극히 소량의 곡물류 및 열대성 產物로 制限되어 있어 한국경제가 必要로 하는 工業用 原料는 거의 全無한 형편이다.

本章에서는 韓國의 商品輸出, 建設進出 및 資本進出에 局限하여 綜合·整  
理하고자 한다.

### 1. 商品輸出

韓國의 對黑아프리카輸出은 1978年 190백만 달러에서 1982年 715백만 달  
러로 급속히 擴大되었으나 1983年 454백만 달러로 대폭 減少하므로서 극히  
不安定한 狀態를 보이고 있다. 여하간 1978~83年間 年平均 19.0% 伸張率  
을 보임으로써 同期間 韓國의 年平均 總輸出伸張率 14.0%를 상회하는 결과  
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韓國의 總輸出에 대한 對黑아프리카 輸出構成比도  
1978年 1.5%에서 1983年 1.9%로 다소 증가하였다.

〈表 9〉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의 對黑아프리카 國別輸出構成比에 있어서  
리베리아(56.6%)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외 나이제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및 가봉을 추가하면 84%에 이르고 있다. 其他 國家의 경우 2.0%  
이하로서 韓國의 對黑아프리카 輸出構造는 한마디로 리베리아와 나이제리아  
에 지나치게 偏重되고 있는데, 1978年에 비할 때 이러한 不均衡은 오히려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를 다시 品目別로 〈表 10〉에 정리하여 보았다. 두드러진 特徵으로서 對  
리베리아 船舶類輸出이 거의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同品目을 포함하는 重化學工業製品의 경우 輕工業製品이나 飲食料品  
및 原材料의 輸出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2. 建設進出

韓國의 對黑아프리카 建設進出은 1974年 東山土建의 나이제리아에 14.3萬  
달러의 초자로工場 建設工事 受注를 始發로 1984年 2月末 현재 4個國에 627  
백만 달러의 累計 實積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實積은 韓國의 總海  
外受注 累計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對黑아프리카進出이 极히 미미함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또한 이를 國別로 보면 나이제리아 307.5백만 달러(49%), 차이레 300백만  
달러(47.8%), 카메룬 10.5백만 달러(1.7%), 가봉 9.4백만 달러(1.5%)

〈表 9〉韓國의 對黑아프리카 主要國別輸出構造

單位: 千달리, %

	1978	構成比	1979	1980	1981	1982	1983	構成比	1978~83 年平均 增长率				
리	비	리	아	57,718.6	30.3	40,601.5	198,480.9	316,764.3	443,150.4	257,192.1	56.6	34.8	
나	이	제	리	아	45,496.2	23.9	133,559.0	124,422.4	105,025.4	134,979.3	69,627.7	15.3	8.9
케	이	리	나	8,816.0	4.6	8,738.5	13,755.2	12,888.6	21,489.9	21,396.0	4.7	19.4	
이	디	오	파	아	19,590.8	10.3	7,380.2	6,699.8	17,945.6	17,194.9	20,089.1	4.4	0.5
가			봉	터	3,113.9	1.6	3,323.2	2,607.8	2,865.9	5,349.0	12,582.6	2.8	32.8
자			부	나	1,858.0	1.0	682.9	1,934.7	3,271.2	7,490.9	9,007.3	2.0	37.1
가			나	9,846.2	5.2	50,556.8	19,757.1	10,952.9	5,970.5	9,301.1	2.0	-1.1	
소			아	2,950.8	1.5	145.2	467.3	362.3	1,577.7	6,861.7	1.5	18.4	
세			갈	1,921.9	1.0	3,834.5	3,722.8	3,470.7	10,130.4	6,096.6	1.3	26.0	
자			레	682.7	0.4	296.9	820.6	1,851.2	3,842.1	6,380.4	1.4	56.4	
카			아	1,518.3	0.8	11,361.1	5,414.7	4,319.2	4,925.1	5,654.0	1.2	30.1	
이			리	2,602.4	1.4	4,428.3	7,197.0	8,719.5	9,980.2	5,514.6	1.2	16.2	
포			스	6,749.7	3.5	5,147.6	3,286.9	4,293.9	4,371.3	4,787.7	1.1	-6.6	
우			다	52.7	0.0	52.0	1,110.8	982.6	533.2	3,055.3	0.7	125.2	
카			운	1,849.6	1.0	1,828.2	1,757.5	1,025.0	3,601.2	1,864.1	0.4	0.2	
기			타	25,643.8	13.2	14,301.7	23,938.0	36,865.4	40,669.6	14,936.1	3.3	19.0	
合	計			190,411.6	100.0	286,237.6	416,373.5	531,603.7	715,255.7	454,346.4	100.0	19.0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978~83.

&lt;表 10&gt; 韓國의 對黑아프리카 輸出商品構造

單位·千달러, %

商 品	品 名	SITC No.	構 成 比			1980~82 年 平 均 增 加 率	主要 輸出對象國(1982年 構成比: %)
			1980	1981	1982		
飲 食 料 品	0+1 2~4+68 61~66+8 <sup>1)</sup>	12,568 436 141,085	9,121 220 144,353	7,624 783 127,416	1.1 0.1 18.0	-22.1 34.0 -5.0	가나(37.2), 모리시어스(35.9) 나이제리아(80.6) 나이제리아(32.7)
原 軽 工 製 造 品	62 63 64	12,575 28,861 3,802	9,002 26,963 1,489	5,501 17,215 587	0.8 2.4 0.1	-33.9 -22.8 -60.7	나이제리아(32.9), 이니오피아(17.7) 나이제리아(80.8), 나이제리아(17.5) 나이제리아(68.8)
木 紙 織 物	65	61,767	60,794	79,008	11.0	13.1	나이제리아(16.4), 토고(12.0)
織 物 製 品	66	8,887	20,411	9,795	1.4	5.0	나이제리아(92.8)
金 屬 製 品	82	199	89	229	0.0	7.3	나이제리아(89.5)
家 用 品	83	2,020	3,842	1,573	0.2	-11.8	이니오피아(61.9)
旅 行 用 品	84	16,662	17,898	9,758	1.4	-23.5	다호에이(14.8), 리베리아(12.4)
衣 類	85 2)	6,258 296,709	3,783 373,105	3,390 570,334	0.5	-26.4	나이제리아(63.8)
重 化 學 工 業 製 品	5	7,337	4,458	18,271	2.6	57.8	리베리아(77.0), 나이제리아(15.1)
鐵 金 屬 製 品	67 69	4,580 13,444	5,186 12,117	8,155 15,568	1.1 2.2	33.4 7.6	케나(43.6), 페루(21.9) 나이제리아(73.1), 케나(13.6) 나이제리아(87.0)
機 械·運 輸 裝 備 船 舶	7 793 9	267,860 240,913 1,250	339,072 303,722 —	514,615 437,149 —	71.9 61.1 —	38.6 34.7 —	리베리아(85.1), 나이제리아(11.9) 리베리아(100.0)
其 他	合 計	0~9	416,373	531,604	715,256	100.0	31.1
							리베리아(62.0), 나이제리아(18.9)

資料：韓國貿易協會,『貿易統計』, 1980~82.  
註：1) SITC No. 61~66+8—87~88. 2) SITC No. 5+67+69+7+87+88.

3) 1982년의 前年對比 增加率.

로 나이제리아와 자이레로부터의 受注額이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市場의 多邊化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 3. 資本進出

韓國의 對黑아프리카 投資(殘存額)은 1982年末 현재 12.9백만 달러로서 總海外投資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國別로는 수단 7.9백만 달러(61.2%), 가봉 3.8백만 달러(29.8%), 나이제리아 1.1백만 달러(8.9%), 세네갈(0.1%)의 順이다. 業種別로는 製造業(56.5%), 電力業(28.7%), 建設業(9.3%), 貿易業(5.4%), 水產業(0.1%)으로 그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黑아프리카諸國은 아직도 國內貯蓄率이 낮아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는 상당량의 外貨導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鐵業, 水產業, 林業 等 自國의 資源 및 人力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分野에 대한 合作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V. 對아프리카進出關聯 諸制約 및 與件

第4章까지는 韓國의 對아프리카進出 自體의 趣旨와 關聯하여 經濟的 諸與件을 分析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諸國과 經濟去來를 強化함에 있어서는 同地域의 需要와 韓國側의 供給에 關한 研究만에 局限시킬 수는 없으며, 보다 悲觀的인 次元에서 進出에 따르는 周邊與件, 即 制約이나 支障 등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本章에서는 마지막으로 韓國의 進出을 深化, 또는 擴大하는 過程에서 提起될 수 있는 주로 否定的인 要素들을 中心으로 包括的으로 概觀코자 한다.

### 1. 아프리카化(Africanization) 政策

#### 1) 意義

본래 「아프리카化 政策」이란 用語는 特히 2次大戰 以後 舊植民勢力(주로 유럽諸國)에 對抗하여 政治的 獨立의 成취를 意味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獨立 以後에 있어서도 各國은 多樣한 部族, 人種 및 言語를 內包하고 있었으므로 單一國家로서의 統合統一이 큰 課題로 登場하였고 이 때문에 아프리카化 政策은 一國建設, 즉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기 위한 標語로 強調

되고 있다.

특기할 것은 60年代 들어서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諸國이 政治的인 獨立을 이룩하자 最近에 이르러는 經濟的 自立을 위한 趣旨가 더욱 強調되고 있다는 點이며 이 역시 對아프리카 經濟進出에 있어서 直·間接的인 沮害要因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즉 同政策은 一種의 經濟的 내셔널리즘의 한 表現이라 할 수 있는데 資源波動 以後 한층 強化되는 듯한 인상을 주며 各國이 處해 있는 狀況 여하에 따라 상당히 伸縮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以下 經濟的인 側面에서 아프리카化 政策의 類型을 綜合 要約하고자 한다.

### 2) 資源내셔널리즘

多邊的인 次元에서 아프리카化 政策의 하나는 保有資源을 武器로 한 集團的인 시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政治的 目的 達成뿐만 아니라 對外交涉力의 強化는 물론 各國內 社會·經濟開發을 促進시킨다는 實利追求까지를 意味한다.

다른 資源 生產·輸出 後進國들과 步調를 같이하여 아프리카諸國은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資源에 대한 權益保護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石油輸出國機構(OPEC), 銅輸出國政府間協議會(CIPEC) 또는 合礦石輸出國聯合(AIOEC)等 保有資源別로 生產國카르텔에 參與하고 있으며 石油波動 以後 UN의 테두리內에서 開催된 各種 資源總會에 參席하여 高潮되는 資源民族主義에 편승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部分 아프리카諸國에 있어서 數個 資源의 生產·輸出에 그 經濟가 크게 依存하고 있어 資源에 關한 主權, 生產運營 및 國際市場價格에 큰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資源時勢의 变動은 이들 各國이 保有하는 外貨水準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 여부를 決定짓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60年代 以來 國際市場價格의 상대적인 下落이 經濟成長을 저해하여 왔다고 믿기 때문에 아프리카諸國의 經濟外交는 交易條件의 改善에 그 重點이 두어지며 國際需給의 動向에 따라 또 다른 資源波動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充分히 있다.

### 3) 國營화의 推進

다음 國別 아프리카化 政策 중 가장 과격한 수단으로서 國營化를 들 수 있는데 제일 最初의 例는 1966年 자이레(當時 콩고)의 國有化法 公布이다. 同法에 의거하여 자이레政府는 1967年 벨기에系 最大 銅會社의 하나인 위니

옹·미니에르(Union Miniere, 資本金 210백만 달러)를 100% 國有化하여 제코민(Gecomin)으로 改稱하였다.

다음 1968年 잠비아가 國有化를 主內容으로 하는 經濟計劃을 發表한 後 1970年 英國系 銅資本 RST 및 AAC 兩會社의 保有株式 51%를 인수하여 인데코(INDECO)로 하여금 承繼계 하였고 鎳業權을 政府에 歸屬시켰다.

그 後 原油波動을 前後로 하여 國有化가 크게 論議되었으나 이는 리비아와 같은 아랍產油諸國의 경우에 해당하며 사하라 以南의 黑아프리카諸國은 보다 온건한 政策에 呼訴하고 있다(단 자이레는例外). 即 大部分의 이들 國家가 意慾的인 經濟開發計劃을 遂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外國資本 및 技術導入의 불가피함을 切實히 느끼고 있어 最近까지 國有化政策보다는 經營參加를 비롯한 廣意의 協力에 치중하고 있다.

#### 4) 經營參加

가장 보편적인 아프리카化 政策은 合作形態의 추진으로서 대다수의 國家가 一定條件 아래 外國資本에 대하여 一定 比率의 國內資本參與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은 한마디로 國內 福祉의 增大와 政治的 權威의 확립을 위한 경영참가 擴大的 必要, 그리고 工業化的 促進을 위한 선진국 자본 및 숙련 노동 또는 技術導入의 要請間 一種의 「타협」이라고 하겠다.

아프리카化 政策의 일환으로서 國內外資本合作의 推進은 國別로 크게 형태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資源豐富國과 貧困國의 경우로 大別할 수 있다. 前者에 있어서는 外國企業에 대한 國內資本의 參與가 法制定에 의하여 明文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히 강요되고 있는데 代表的인 例로서 나이제리아와 가봉을 들 수 있다. 反面 後者에 屬하는 國家들은 대부분 形式的으로는合作形態를 要求하고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오히려 全額 外國人 投資도 장려하고 있는 實情이다.

#### 5) 雇傭 및 賃金政策

아프리카諸國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政策中의 하나는 고용 및 所得增大策으로서 外國資本에 대하여 갖가지 條件을 課하고 있다. 그 内容은 外國資本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人力에 대한 制限, 職種別 또는 職級別 國內外 労動構成比率의 事前割當 또는 外國人 취업에 있어서 강요되는 一定條件等 极히 多樣하다. 이에 대하여 자이레의 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外國人企業들에게 相對的으로 높은 賃金規定의 준수를 要求하며 政府의 지 휘를 받는 勞組를 동원하여 社會條件의 改善을 시도하기도 한다.

## 2. 財政構造의 不均衡

아프리카諸國의 GNP에 對한 歲出額의 比率을 보면 平均 35%내외로서 他 諸國과 比較할 때 政府部門의 役割이 民間部門의 경우보다 相對的으로 큰 편이다. 이는 低開發狀態에 있는 아프리카國家들이 政府主導의 開發投資를 強力히 推進하고 있기 때문에 歲出에 대한 開發支出의 比重이 約 50%에 達하는 傾向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아프리카諸國의 歲入源을 살펴보면 主로 間接稅分野에 依하여 充當 되고 있는데 이러한 間接稅는 總歲入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러한 間接稅는 國別로 차이는 있으나 60% 以上 關稅收入으로 構成된다.

結論的으로 아프리카諸國들은 開發投資를 위해 政府部門이 經濟에 크게 介入하고 있으므로 韓國의 對아프리카進出에 있어서 政府水準의 支援이 絶對 必要하다는 點을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다.

## 3. 金融政策

아프리카諸國의 通貨價值는 主로 프랑스 프랑(프랑地域의 경우), SDR 및 美달리에 Peg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國家가 自國通貨價值의 安定을 위해 舊宗主國이나 美國의 通貨에서 SDR Peg로 轉換하는 傾向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또 汎아프리카主義 및 아프리카化에 밭맞추어 地域內貿易의 決濟를 위하여 域內通貨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프리카諸國通貨間의 簡便적인 換率決定 等을 모색하고 있다.

## 4. 國際收支 및 外債償還能力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黑아프리카의 國際收支는 80年代에 들어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1983年 經常收支赤字는 23억 달러에 달했다. 黑아프리카의 外債는 1981年 末 전세계 開途國 外債總額의 12.9%인 64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계속 擴大的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次 오일 쇼크 이후 外換收入의 減少와 國際高金利로 인하여 상환부담은 오히려 加重되고 있다.

外債償還額이 1982年 7,114백만 달러에서 1983年에는 8,345백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元利金償還負擔率(DSR)은 1983年에 28%를 초과하고 있다.

〈表 11〉 黑아프리카의 國際收支推移 單位 : 10億달러

	1981	1982	1983	1984
商品輸出(f. o. b.)	68.46 (-20.74)	61.21 (-10.60)	56.59 (-7.55)	64.74 (14.41)
商品輸入(〃)	74.15 (8.43)	67.20 (-9.38)	63.11 (-6.08)	69.82 (10.63)
貿易收支	-5.69	-5.99	-6.53	-5.08
用役收支	-18.45	-18.25	-19.58	-20.11
移轉收支	4.11	3.65	3.23	3.92
經常收支	-20.03	-20.60	-22.87	-21.27

資料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83.

註 : ( )는 前年對比 增加率임.

이에 따라 黑아프리카諸國은 外債壓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債務償還日程再調整(rescheduling)協定을 체결 연장해 오고 있다.

## 5. 貿易政策

### 1) 輸入政策

아프리카諸國의 關稅制度를 概觀한다면 대부분 CCCN分類方式을 채택하고 있고 課稅基準에 있어서는 CIF價格基準이 일반적이나 南阿, 잠비아 및 로데지아 等만은 FOB價格基準에 의하고 있다.

關稅體系를 본다면 나이제리아, 가나, 카메룬, 자이레, 시에라리온, 잠비아, 이디오피아 等 많은 國家가 單稅制를 채택하고 있으나 南阿, 아이보리코스트, 세네갈 및 말라위 等은 예외적으로 複稅制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關稅率政策을 綜合한다면 大部分의 國家가 國內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 및 財政收入의 擴大를 目的으로 戰略的으로 特定部門에 대하여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네갈 및 아이보리코스트를 비롯한 西部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自由貿易主義的 立場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特記할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域內 각종 經濟統合의 推進으로 인하여 特惠對象國家들이 많다는 點이다.

다음 非關稅政策을 보더라도 國內 幼稚產業保護나 사치품을 비롯한 不要不急品의 輸入抑制를 위하여 거의 모든 國家가 輸入規制를 가하고 있다. 즉 自由貿易을 추구함으로써 輸入에 별다른 制限이 없는 리베리아를 제외한다면 모든 아프리카國家들은 非關稅 장벽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貿易統制國 中 대부분의 프랑스圈國家들과 南阿 및 자이레 等은 輸入을 間接規制하고 있다. 즉 가봉, 아이보리코스트, 카메룬, 자이레, 모리셔스 및 잠비아 等은 年間輸入計劃의 수립에 의한 輸入許可制를 통하여 貿易을 간접적으로 制限하고 있으며, 세네갈, 코모로스, 기니아 및 탄자니아 等은 個別品目許可制에 의해서, 쟈드는 글로벌 퀴타(Global Quota)에 의해서 輸入을 간접적으로 統制하고 있다.

반면 나이제리아, 가나,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타니아 및 시에라리온 等은 政府貿易會社가 직접 貿易에 介入하고 있다. 물론 輸入規制方式에 있어서는 글로벌 퀴타나 年間輸入計劃에 의한 許可制 等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및 우간다 等 社會主義化를 추구하고 있는 國家들은 政府가 직접 貿易을 전담하는 國營貿易에 해당한다.

## 2) 外換管理

輸入代金의 決濟에 있어서 하등의 制限이 없는 리베리아를 제외한다면 모든 아프리카國家들은 輸入代金의 決濟에 있어 다소의 制約를 가하고 있다. 즉 輸入許可가 결정된 경우 公認外國換銀行을 경유해야 하며 그 이외 財務當局이나 中央銀行이 外換管理를 담당하고 있다. 西獨・日本 等 많은 國家들과는 雙務協定에 따라 清算去來方式 또는 求償貿易方式 等의 形태로 貿易去來를 하고 있다. 프랑스圈內 外換management는 프랑스財務部와 각 發卷銀行과의 協定에 따라 매년 自國의 輸入計劃을 同國과 協議하여야 하므로 輸入代金決濟에 있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諸國과의 資本去來에 있어서는 政府當局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하며 各國內 外換壓力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外換의 流入은 자유로우나 資本의 流出은 매우 엄격하게 統制받는다. 특히 外國人投資家들의 果實送金은 上限線設定에 의해 規制받고 있다.

아프리카諸國內 外換management上 特性의 하나는 輸入管理, 를 輸入許可와 輸入代金의 決濟間 큰 聯關係이 있다는 點이다. 즉 아프리카諸國의 輸入政策 나 아가 市場은 外換事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 6. 經濟統合

第3章에서 살핀 바 있는 로마協定이 EC會員國과 아프리카間 特惠地域의 設定이라는 데 그意義가 있다면 同地域內 依存하는 각종 형태의 經濟統合

機構는 보다 特定地域間 關稅同盟이나 나아가 經濟同盟의 實現을 추구하고 있다는 點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韓國內 企業이 아프리카市場 基盤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러한 類의 經濟機構가 갖는 利, 不利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經濟統合機構로서 西아프리카經濟共同體(Communauté Economique de l'Afrique de l'Ouest, CEAO), 東아프리카共同體(East African Community, EAC), 西部아프리카諸國經濟共同體(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S) 및 中部아프리카關稅·經濟同盟(L'Union Douaniè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UDEAC)을 들 수 있다.

## VI. 韓國의 對아프리카市場 經濟的 進出強化를 위한 政策對案

韓國의 對아프리카 經濟的 進出의 意義는 同地域內 풍부한 資源의 低價, 安定的인 供給源의 確保, 그리고 商品輸出의 增大, 企業進出의 強化, 建設 및 플랜트輸出의 擴大 等으로 要約된다.

80年代 들어서서 과거 追求해 온 輸出先導型 成長戰略이나 重化學工業化政策을 再考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비록 運營方法 또는 遂行過程 等 選擇의 問題는 등장한다 하더라도 韓國의 經濟與件을 감안할 때 결국 對外指向的 開放政策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中東에 對備하기 위하여 아프리카諸國과의 經濟去來를 強化한다는 方向은 韓國經濟가 80年代 以後에 당면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課題임을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다.

그간 市場의 多邊化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아프리카間 經濟去來는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는 實情이다. 이는 특히 EC會員國, 美國 및 日本의 進出方法이나 規模에 비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結論的으로 向後 韓國의 對아프리카 經濟的 進出을 深化 및 擴大하기 위한 政策方向과 이에 수반되어야 할 總體的인 措置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 1. 資本·技術協力의 提供

低所得, 外貨不足 및 意慾的인 經濟開計劃의 推進과 같은 아프리카 經濟

의 特性을 고려할 때 同地域에 대한 市場의 深化를 위하여는 對先進國 去來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한 商業베이스나 現金去來에 의한 進出보다는 長期的 인 計劃아래 폭넓은 資本·技術協力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아프리카大陸內 基盤을 굳히고 있는 EC, 美國 및 日本 等의 例에서 다시금 確認되며 長期의 인 眼目에서 同地域內 經濟發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支援이 행해져야 한다.

形態는 韓國이 1978年 5月 加入한 아프리카開發基金(ADF)이나 아프리카開發銀行(AFDB)의 會員國 立場을 활용 또는 UN산하 각종 援助機構를 통한 多邊的인 方法과 國內機構에 의한 獨自의인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後者의 例로서 國內 與件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該當部處 산하 海外開發協力基金이나 아니면 별도의 海外經濟協力廳과 같은 對後進國 資本·技術協力專擔機構의 設置를 강력히 主張한다. 아프리카進出에 따르는 필요한 支援이 그 重要 機能中의 하나로 삽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支援對象 事業은 輸出入銀行과의 제휴 아래 플랜트輸出은 물론 資源開發輸入, 企業進出, 建設輸出, 技術協力 나아가서는 無償援助 等 다양해야 한다.

## 2. 支援體制의 再整備

현재 플랜트輸出을 제외한다면 對後進國 進出에 있어서 별도의 支援體制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각종 金融 및 財政支援은 對後進國 특히 아프리카諸國과 같은 資源保有 最後進國 중심으로 중점적인 運營方式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第5章에서도 보았거니와 韓國의 經濟擴張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 初期進出에 있어서 그만큼 危險負擔이 따르고 갖가지 制約이 가로 놓여 있으므로 外部效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의 前述한 經濟協力體制基盤의 造成과 관련하여 아프리카市場의 諸般與件 및 隘路를 특히 감안하여 保險, 保證制度의 내용을 補強, 그리고 그 對象을 擴大할 필요가 있다.

## 3. 地域別 進出戰略의 樹立

黑아프리카內 經濟進出 對象地域을 大別한다면 셋으로 分類할 수 있다. 물론 예외가 허다하나 總體的으로 볼 때 우선 舊프랑스共同體 中心의 西部아프리카는 热帶性產物, 鑛物資源 및 林產資源을 保有하고 있는데 政治·經濟的

安定도 이루었으며 經濟的 自由主義를 追求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所得水準도 높다. 또 韓國의 外交的 基盤도 상대적으로 오래된 地域이기도 하다.

나이제리아 및 中部아프리카는 가봉을 제외한다면 所得水準이 일반적으로 낮으나 특히 풍부한 鎳物資源을 갖고 있어 資源의 直接輸入 내지는 開發輸入에 관심을 가져야 할 地域이다.

한편 東部아프리카諸國은 農水產資源이 풍부하게 賦存되어 있으나 所得水準面에서 뒤진다.

따라서 韓國의 對아프리카 進出에 있어서 아이보리코스트 및 세네갈을 비롯한 일부 西部아프리카諸國은 일종의 據點的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가봉을 제외한 中部아프리카諸國과는 商品의 輸出보다는 經濟協力의 提供을 통한 資源輸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4. 商品輸出

아프리카經濟에 있어서 特性中의 하나는 個人別 소득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며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商品市場의 基盤을 形成할 수 있는 中產層이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极히 制限된 高所得層의 대 부분은 고급에 속하는 必要商品을 先進諸國에서 혹은 이 地域에서 直接購買할 수 단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韓國의 輸出은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한 低價商品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가봉에 설립된 兩國合作에 의한 百貨店이 成功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國內 輸出企業은 아프리카內 所得水準에 맞는 低價商品을 開發하여 輸出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低價의 小規模 注文을 綜合, 處理할 수 있도록 綜合商社의 役割을 擴大해야 한다.

#### 5. 合作進出(企業進出, 建設輸出 및 開發輸入)

對아프리카 進出에 있어서 큰 制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化 政策, 政情不安이나 韓國企業資本의 規模 및 技術의 상대적 劣位 等 諸難點을 극복할 수 있는 方案의 하나로서 企業進出, 建設輸出 및 開發輸入을 추진할 경우 第3者와의 合作을 권유하고 싶다. 즉 해당 아프리카地域內 基盤이나 歷史, 政治的 特殊關係를 고려하여 例로 舊宗主國(舊프랑스共同體인 경우 프랑스) 그리고 現地國 企業과의 合作을 推進할 수 있다.

한편 企業進出에 있어서는 韓國內 供給條件이나 當該 아프리카國內 雇傭擴大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初期에는 섬유, 봉제 및 電子製品과 같은 보다 勞動集約的인 部門이 對象事業으로서 적당하다.

끝으로 적절한 國內 資源對策, 資源外交 및 長期契約에 의한 直導入體制의 實現 等이 달성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함께 合作에 의한 開發輸入政策도 추구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에는 각종 財政·金融措置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鑛物開發에 따르는 特殊한 負擔을 참작하여 鑛物公團과 같은 專門機關을 설치하여 側面支援할 필요가 있다.

#### 6. 플랜트輸出

重化學工業化的 추진이나 아프리카市場의 特性으로 미루어 플랜트輸出이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實績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韓國의 플랜트輸出이 부진한 가장 큰 要因은 價格競爭力이 약하다는 점이며 그 이외 技術水準의 低位, 金融上 支佛條件의 不利, Feasibility Study의 미흡, 國內業體間 過當競爭 및 經驗不足 等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물론 長期的인 性格을 띠고는 있으나 國內機械工業을 비롯한 향후 特化產業部門에서의 技術 및 熟練勞動의 蕩積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產業 基盤의 擴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플랜트關聯機器 메이커의 專門化, 系列化的 추진을 통한 效率性의 提高를 전제로 한다.

한편 價格競爭力의 弱勢를 보완해 주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강력한 支援政策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없으며 支援規模나 形態는 점차 그 폭을 좁혀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支援措置로서 金融面에서의 延拂輸出 支援體制의 擴充 및 融資條件의 優待 또는 稅制面에서의 法人稅減免幅의 擴大와 期間延長 等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도 保險制度와 關聯하여 同制度의 擴大는 물론 支給保證限度의 緩和 내지는 撤廢 等 허다한 예를 들 수 있다.

#### 7. 間接迂迴輸出의 摸索

아프리카諸國은 特殊한 經濟·政治·歷史的 與件으로 인하여 EEC와의 協定을 비롯하여 域內에서도 갖가지 特惠地域에 가입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諸國이 附加價值 基準에 입각한 原產地 規定을 採擇하고 있는데 이  
러한 規定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內에서 EC會員國 또는 他아프리카國家를 통  
한迂迴的 輸出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 輸出內容은 中間財 및 半製品  
일 수도 있으나 合作形態에 의한 企業進出의 方法도 가능하겠다.

### 참 고 문 헌

#### 國際經濟研究院

1984a 『아프리카經濟와 우리의 進出擴大 方案』, 1984. 8.

1984b 『아프리카主要國의 商品輸入構造 分析』, 1984. 8.

#### 建設部

1984 『建設輸出現況』, 1984. 2.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0~83.

#### 韓國銀行

1982 『海外投資現況』, 1982. 12. 31.

#### 日本通產省

1978 『通商白書』

1982 『通商白書』

1982 『經濟協力の 現狀と 問題點』

1983 『我が國企業の 海外事業活動』

#### Europa

1982 *Africa-South of the Sahara.*

#### IMF

198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8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UN

1983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1983. 2.

1984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WEFA

1983 *World Economic Outlook*, 1983. 10.

#### World Bank

1983 *World Atlas.*

1983 *World Development Report.*

*EIU, QER* 1981~83年 各號。

*Marchés Tropicaux*, 1971. 10, 1981~83年 各號。